

호주의 한국식품 시장동향

1. 호주시장 개황

가. 농업개황

호주의 농업생산액은 약 167억불로서 국내 총생산액의 약 5%수준을 밑돌고 있으나 농수산물 수출액은 총수출액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호주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축산물은 양모, 육류(쇠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낙농품(분유, 버터, 치즈), 꿀, 설탕, 밀쌀, 대두, 유지작물(면실, 해바라기)과 과실류(사과, 배, 감귤, 바나나, 살구, 복숭아, 포도), 감자 등으로서 품목별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양모 : 호주는 세계 양의 1/6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털은 세계생산의 1/3을 차지하는 580천톤을 생산하여 이중 23%가 수출되고 있음. 주 시장은 일본, 서유럽, 러시아 및 중국으로서 호주는 세계 의류용 양털수출의 3/4을 공급
 - 쇠고기 : 생산량은 연간 약 1.9백만톤으로 이중 약 45%를 수출하고 있는데 미국이 최대수입국이고 다음이 일본, 한국 순임.
- 그 밖에 돼지고기와 가금육은 대부분 자급수준에 머물러 있음.
- 양고기 : 연간 생산량 640천톤중에서 수출량은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뉴질랜드 다음의 순위임.

- 낙농품 : 주요품목은 전지분유, 버터, 치즈, 농축 우유제품 등으로 이들 제품은 생산량의 약 1/2을 수출하고 있음.
- 꿀 : 생산량은 연간 23천톤이며 이중 약 1/2이상을 수출
- 밀 : 16백만톤을 생산하며 약 80%를 수출하는데 주 수출시장은 중동의 이란, 이라크, 이집트와 중국, 일본 등임.
- 쌀 : 생산량은 연평균 1백만톤이고 이중 약 57%를 수출하는데, 주 시장은 파푸아뉴기니아, 홍콩, 태평양제도 및 중동지역임.
- 유지작물 : 면실과 해바라기씨를 수출하는데 국내생산량 600톤중 약 26%를 수출
- 과실류 : 감귤은 국내생산량 71만톤중 약 15%인 10만톤을 수출하고, 사과는 생산량 32만톤 중에서 12%를 수출하며, 배는 17만톤 생산중 16%를 수출하고 있음.
- 감자 : 국내 생산량 115만톤 중에서 1.5%인 17천톤을 수출

나. 수입시장 현황

호주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95%를 자급하고 있으나 다양한 국적의 이민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류 수입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호주내 동양계 인구는 약 60만명이고 그중 중국계 40만명, 월남계 7~8만명, 인도인

이 4~5만명, 한국인 4만명, 기타 태국인, 말레이시아인, 일본인 등 3만명이다.

우리 교민수는 약 4만명으로 시드니에 3만명, 부르스베인과 퀸즈랜드 5천명, 멜보른 3~4천명, 기타지역 및 유동인구 3천명(유학생 및 관광인구)으로 구성되어 있다.

호주내의 한국 식품점 수는 36개, 중국계는 600여개, 일본계 130개소가 있으며, 현지인마켓은 WOOLWORTH, COLES, FRANKLIN, K-MART 등 대형체인망을 포함하여 약 800개이다.

호주의 농수산물과 식품류 수입은 94년도에 전년대비 5.8% 증가하였고 '95년도에는 전년대비 10.7% 증가하여 호주화로 2,648백만불에 달하고 있다.(호주화 대 미화

환산율은 0.80)

2. 국별 식품수입 현황

가. 수입 대상국 및 주요 수입품목

현지의 한국산 수입업체들은 대부분 한국 수입품만을 취급하고 있었으며, 취급 품목 수는 500여종에 업체당 월간 취급액이 약 7~10만불 수준이었다. 이들 업체들은 라면, 우동국수, 김, 김, 녹차 등을 제외한 대다수 품목들은 1CTN 미만의 소량 다품목 위주로 수입하고 있었으며 식품이외에 가정용 공산품도 전체 매출액의 약 10% 정도의 규모로 취급하고 있다.

표 1. 호주의 농수산물/식품의 연도별 수입동향

(단위 : A\$ 백만)

품 목	'92/93	'93/94	'94/95	증가율
동물성 유지	204.6	226.2	228.0	0.8
낙농제품	162.9	167.3	174.6	4.4
수산부류	497.1	539.4	615.9	14.2
곡물류	174.8	182.8	202.4	10.7
채소류	206.0	203.6	210.1	3.2
과실류	143.8	145.2	173.7	19.6
커피, 차, 코코아	250.8	286.7	399.3	39.3
과자류	125.3	123.4	72.8	-41.0
조미료 및 소스	52.8	60.0	62.8	4.7
음 료	326.1	306.5	363.4	18.6
기 타	116.6	141.8	145.1	2.3
합 계	2,260.7	2,392.8	2,648.1	10.7

나. 한국식품 유통경로 및 마진율

○ 유통경로

— 한국업체들은 수입품을 약 36개소의 한국교민식품점과 290개의 중국계 식품점 및 현지인의 대형 슈퍼체인 등으로 공급하고 있고, 다른 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한국식당으로는 소매점포가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 계통별 공급품목

〈표 2〉

○ 단계별 마진

품목별 및 시장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현지의 도·소매 유통마진은 약 40~50

%로 수입 도매 단계의 마진이 15~20%, 소매단계마진이 25~30%로 구성되어 있다.

※ 참고로 현지에서 방문한 「일본식품사(JAPAN FOOD CORPORATION)」의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취급부류 : 과자류, 곡물제품, 쌀, 주류, 국수류, 식용유, 식초, 마요네즈, 소스·스프, 해산물, 음료·차, 냉동식품(만두, 오뎅 등), 채소류, 기타

2) 수입·판매 전략

○ JFC는 일본 40%, 미국 30%, 아시아 국가(중국, 베트남, 태국) 30%의 비율로 식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주

요 수입경로는 동남아 제3국산의 일
본제품과 일본산을 일본 본사로부터
일괄운송 시스템으로 공급받아 주로

현지의 일본식당과 중국계, 태국계
식당에 공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
다.

표 2. 계통별 공급품목

공급계통	공급율	주요공급품목
한국계 소매점포	45%	라면, 과자류, 국수류(막국수, 짜장국수, 우동, 메밀 등), 음료(커피, 식혜, 오렌지, 포도, 박카스 등), 장류, 당면, 냉면, 오뎅, 동태(냉동), 빙과류, 약과, 만두, 젓갈류(오징어, 청란, 명란), 건어물(김, 미역, 다시마, 오징어채, 북어채, 쥐채, 멸치), 단무지, 차(녹차, 현미차, 보리차, 옥수수차, 인삼차, 생강차), 곡물류 등
중국계 소매점포	53%	라면, 장류, 김치(현지공장 공급품), 국수류, 냉동연제품(오뎅, 게맛살), 조리식품 등
현지인 체인점	2%	스낵(과자류), 라면, 국수(현지제조 생국수 포함), 게맛살(현지업체산), 녹차 등

※ 중국계 중 홍콩 중국계는 품질위주의 마켓이고 베트남 중국계는 가격위주의 마켓임.

주요 공급대상 업체수와 공급비율은 일본
식당 130개소 공급에 50%를 차지하고 중
국계 400개소에 25%, 태국계 200개소에 15
%, 호주인 마켓 공급에 10% 등을 차지하
고 있다.

- 동 JFC 사장은 한국식품이 품질은 우
수하나 가격이 비싼 편이며, 한국교민
수가 많지 않은데다가 한국업체와 경
쟁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산 취급은 몇
가지 품목에 한정하고 있다 함(한국식
품은 주로 냉동제품을 일본 거쳐서 수
입).

현지에서의 홍보는 현지 메스컴 홍
보이외에 각종 문화·체육 행사시에 제
품을 무료 제공하여 현지인들의 관심
과 구매의욕을 불러 일으키고 있음.

다. 품목별 판매상황

- 국수
 - 호주의 국수류 수입은 이태리산 스
파게티와 파스타가 60%를 차지하
고 나머지 40%는 중국, 태국, 인도
네시아, 홍콩, 한국 등 아시아산이
차지.
 - 아시아산의 수입은 아시아인구의 증
가와 중국식 국수요리의 대중화 추
세에 따라 '95. 7~'96. 4 기간중 전

년대비 34% 증가

- 국별로는 이태리로부터 파스타류,
중국, 태국 등 동남아 국가로부터는
중국식 국수에 사용되는 쌀국수 및
계란국수, 한국과 일본으로 부터는
밀국수 및 메밀국수류가 수입되고
있음.
- 한국산의 대표적인 품목은 우동국
수, 막국수, 통국수 등이며, 한국산
은 품질이 우수하여 현지의 아사아
인 마켓(중국, 일본)으로 꾸준히 공
급(교민 70%, 중국계 마켓 30%의
비율)되고 있으며 판매가 비교적 잘
됨.
- 중국산은 질감이 쫄깃쫄깃하지 않고
잘 부스러지며 가격은 한국산에 비
해 15~20% 낮고 일본산 가격은
한국산에 비해 30% 높음.
- 한국산 포장단량은 1kg(2.2Lb)과
1.36kg(3Lb)의 2종류가 있는데 3~
4식구용으로 3Lb(파운드)는 너무
많기 때문에 1파운드(454g), 1.5파
운드(680g) 소 단량짜리가 적정
- 비닐포장재가 너무 약해 소비자가
진열품을 고르는 중에 파손되므로
개선필요
- 영문표기가 미비된 것이 많아 현지

인마켓으로 공급시 애로(추가비용 발생)
(일본제품은 멀리서 봐도 알수 있도록 디자인이 우수하고 표기도 잘되어 있음)

인어 우수하고 표기도 잘되어 있음)

표 3. 품목별 수입대상국

원산지	수입비율	수 입 품 목
일 본	40%	간장, 단무지, 국수류, 젓갈류, 차류, 식용유, 조미료 등 주로 식당 공급 품목임.
미 국	30	쌀, 김(중국산), 인스탄트면, 생면, 차 등
중 국	15	우롱차, 건면, 냉동뱀장어
베트남	10	조미료, 요리주(COOKING WINE), 소주(하드리카)
태 국	5	냉동어묵(가마보꼬), 꼬치, 새우(스시용), 새우튀김
싱가폴	-	과자류, 채종유, 간장, 인스탄트면

- 아시아인들은 동양국수를 선호하는 반면, 현지 백인들은 이태리산 스파게티를 선호
- 국수에 대한 수입관세는 일반관세를 5%임.
- 혼합조미료
 - 주로 제일제당의 다시다(멸치, 소고기), 미원 만나 등이 대표 품목이나, 현지에서는 육류가격이 싸므로 인기가 별로 없음.
 - 소고기 다시다의 경우 소고기 함량 규제를 받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수입시마다 승인을 받아야 함(국내용은 소고기 함량이 15%이나, 호주 수출용은 5%임).
 - 한국산 혼합조미료는 현지인들에게 사용이 보편화 되어 있지 않아 주로 한국교민시장과 일본 마켓으로만 공급되고 있음.
- 불고기 양념
 - 호주의 소스류 수입은 전반적인 소비증가 추세에 힘입어 94. 7/95. 6 기간중 약 6% 증가, '95. 7/'96. 4 기간중 약 12% 증가 등 호조를 보이고 있음.
 - 수입대상국별로는 미국, 뉴질랜드, 영국 등으로 부터는 스테이크 소스와 드레싱류, 홍콩 등 동남아 국가로부터는 SATAY 소스 등 중국음식용 소스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
 - 한국산 소스류는 주로 된장, 고추장

- 이 주종을 이루면서 불고기 양념으로는 주로 미원, 오투기 제품이 수입·공급되고 있는데, 일본산(燒肉) 이외에 경쟁제품이 없어 교민시장과 중국마켓으로 판매가 꾸준히 증가
- 가격은 A \$ 3.30/240g로 비싸다는 평
- 한국산 품질은 일본산에 비해 인공감미료 냄새가 많이 나며, 가격은 240g짜리가 A \$ 3.30로 일본산에 비해서는 낮으나 중국산에 비해서는 약 50% 높음.
- 녹 차
 - 호주의 차 수입은 홍차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녹차의 소비는 일반화 되어 있지 않은데 '95. 7~'96. 4 기간중 급격한 증가세를 기록
 - 국별로는 중국, 일본으로 부터의 수입이 전체의 70%를 차지
 - 한국산은 93/94년도에 A \$ 32만불로 수입호조를 보였으나 근년에는 일본제(태국 현지제조)에 비해 포장기술이 뒤져 있어 판매가 부진한 편임.
 - 한국산 녹차로는 동서 현미녹차가 잘 판매되고 있으며 한국산은 경쟁제품과 품질차이는 없으나 포장과 BRAND에서 차이가 큼(가격은 한국산이 일본제의 50%수준임).
 - 한국산 개선점은 포장에 영문표기를 할것과 날개 포장지를 은박지(라면

스프치럼)로 할것. 디자인을 분위기 있게 할 것 등임.

- 녹차에 대한 관세는 없음.

○ 인삼음료

- 인삼음료는 소비가 꾸준한 품목으로 보통수준에서 판매되고 있으나 원비에프의 경우 맞은 보통인데 가격은 다소 비싼편임(도매가 A\$1불, 소매가 A\$1.5불이며, 박카스는 A\$1.2불).

- 인삼뿌리가 든 제품이 인기가 있으며 소매가격은 A\$2불임.

○ 홍삼

- 중국계와 현지인들이 소비대상이며 한국교민들은 별로 구매 안함.

- 한국 홍삼가격은 현지인 지출수준에 비해 비싼편이고 현지홍보도 미약하다는 평임(호주의 일반식품마켓에서는 볼 수 없었음).

- 호주에는 인삼(홍삼)의 소비가 아직 대중화 되어 있지 않고 소비층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확대를 위해서는 홍보가 가장 필요

○ 게맛살

- 호주의 게맛살 수입량은 연간 약 A\$40만불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주요 수입대상국은 일본, 태국, 한국, 싱가포르 등임.

- 동품은 주요 소비층이 아시아계이기 때문에 한국교민 및 중국인 식품점 등 동양계 식품점을 통하여 주로 판매되고 있음.

- 호주에서 한국산은 특히 일본제품 및 호주산 등과 경쟁관계에 있으나 일본제품은 한국산에 비해 30%가량 비싸고 호주산은 가격이 싸나 동태가 아니라 다른 어묵을 사용하므로 맛이 없고 세로로 찢어지지 않음.

- 한국산은 품질이 우수하여 특히 중국마켓(식당용)에서 인기가 있음.

- 게맛살은 호주내에 생산공장이 있어서 수입검사가 까다로운 편임.

- 호주인들은 핫도그식으로 게맛살을 기름에 튀겨 먹음.

○ 냉동굴

- 굴은 호주인들이 선호하는 해산물로서 호주 해안에서 대규모 양식 및 채취로 자체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수입품의 점유율은 높지 않은 편임.

- 연간수입액은 350~400만불 수준이며 주로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되고 기타 한국, 일본, 중국 등에서 수입되고 있음.

- 뉴질랜드산은 냉동 또는 신선상태인 반면 한국 등 아시아산은 냉동 또는 건조된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음.

- 한국산의 수입규모는 7~12톤으로 판매는 꾸준함(진양농수산 제품 등).

- 한국산은 호주산과 경쟁관계에 있는데 호주산은 냉동품이 아니고 껍데기채로 판매하며 가격은 한국산의 3배로 비쌈.

- 현지인들은 냉동품보다 신선품을 더 선호함.

○ 김

- 호주의 김, 미역, 한천 등 해조류 수입은 한국, 일본으로 부터만 연간 A\$20~30만불 규모로 이루어지며 최근에는 일본 스시의 보급확대로 김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 그러나 아직 호주인들이 가정에서 김을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일반 슈퍼마켓에서는 김을 거의 취급치 않고 주로 동양식품점을 통하여 판매됨.

- 한국산 김의 주판매대상은 교민 50%, 일본마켓 20%, 중국마켓 20%의 비율임.

- 한국산의 품질은 일본산과 별 차이가 없으나 가격은 한국산이 약 30% 낮음.

- 김은 수입 통관시 함량검사가 까다로운 품목으로 카드뮴 kg당 0.02mg 초과시 수입이 금지됨(검사료는 1회에 A\$170불).

○ 단무지

- 한국산 단무지는 판매가 잘되는 품목중 하나임.

- 주 판매대상은 교민 70%, 중국마켓 20%, 일본 마켓 10%의 비율임.
- 한국교민은 자연색에 약간 염장한 단무지를 좋아하나 일본마켓은 단맛이 많고 색깔은 노란색 단무지를 선호함.
- 일본산은 한국산에 비해 단맛이 높고 품질은 좋으나 가격은 60~70% 더 비쌈.
- 호주에서는 '94년부터 사카린 함량이 0.01mg/kg 초과시 수입을 금지시킴.

○ 꽃 감

- 호주의 말린과일류 수입은 '94/'95년에는 수입 감소를 보였으나 '95. 7~'96. 4 기간에는 전년대비 80%이상 폭증하였음.
- 호주로 수입되는 말린 과일류는 주로 살구, 자두, 망고 등임.
- 수입대상국은 금액기준으로 뉴질랜드 36%, 태국 15%, 대만 6%, 기타 42%임.
- 한국산 꽃감은 중국산 저가품으로 인해 판매가 극히 저조한 편임.

○ 과즙음료·채소주스

- 주스류를 포함한 모든 음료에는 공통적으로 기본관세 5%와 부가세 22%가 적용되어 수출비용이 높음.
- 현지에서 유통되고 있는 음료 및 주스류의 포장형태는 캔에 못지 않게 진공 TETRA팩이 많았으며 이를 6개씩 압축 비닐랩(SHIRINK LAP)으로 포장하여 판매
- 일반 과실음료의 경우, 현지인들은 CLOUDY보다 CLEAR주스를 좋아하며 너무 달지 않고 마신 후 뒤끝이 개운한 것을 선호

[호주에서 한국산식품의 판매상황을 통해 본 제품 경쟁력]

- ① 우위품목 : 라면, 국수, 게맛살, 김, 단무지, 간장, 인삼음료, 과자류, 불고기양념 등
- ② 경쟁가능품 : 녹차, 혼합조미료, 냉동굴, 홍삼

- ③ 열위품목 : 과즙음료, 채소주스, 꽃감, 발조제품, 소세지, 잼, 영지버섯 등
- (註) ①은 한국계 슈퍼에서 외국산보다 판매가 잘되면서 또한 화교마켓, 호주마켓으로도 진출되고 있는 품목, ③은 판매가 거의 안되는 품목임.

라. 한국산 수입·유통상 문제점

1) 공급단계(한국)에서의 문제점은

- ① 한국은 제조일자를 표시하는데 호주는 유통기한(EXPIRE DATE)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음(라면, 과자의 경우 영문표기 및 유통기한 표시없음)
 - ② 상품명, INGREDIENT 등 영문으로 표기된 스티커 부착 미비(단무지 등)로 현지 통관이 지연되고 스티커 작업을 해야 함.
 - ③ 제조일이 상당히 경과된 물품을 공급하여 현지 판매기간이 단축됨.
 - ④ 수출품의 단위 실증량이 표시용량 차이가 남.
- ※ 위의 결격사항이 발견될시 통관이 지연됨.
- ⑤ 일부품목은 수출가격 인상빈도가 잦음(라면 과자 등의 경우).
- 라면, 과자 등의 경우, 국제 곡물가격 인상으로 6개월 또는 수시로 인상

2) 통관단계에서의 문제점은

- ① 호주정부는 모든 수입농산물 및 식품을 3중으로 분류하여 엄격한 통관검사 실시로 통관지연 및 업무번잡
 - ② 통관시 각종 검사실시로 비용부담 증가(수입업자 부담)
 - 샘플링 검사비 : 품목별 A\$ 75불~ A\$ 225불(포장 중량별로 시함)
 - 검사기간당 수수료 : 30분당 A\$ 80불이며, 보통 1시간이 소요되어 A\$ 160불 지출됨.
- 포장 중량별 테스트(김, 냉동굴 등) 병행 실시

호주의 수입식품 통관검사 주요내용

〈검사대상 품목분류〉

- ① 위험부류(RISK CATEGORY : 21개),
- ② 적극감시부류(ACTIVE SURVEILLANCE CATEGORY : 18개),
- ③ 임의감시부류(RANDOM SURVEILLANCE CATEGORY : 기타)의 3종으로 분류하여 통관검사 실시

〈검사내용〉

- 식품별 허용성분 및 함량 등을 엄격히 규정(AUSTRALIAN FOOD STANDARDS CODE 의거)
 - 육류성분, 달걀성분, 증금속, 방부제 및 사카린 함량, 포장 중량테스트

등 실시

- 유통기한, 성분(INGREDIENT)등 라벨링이 미비시 수입업자 책임하에 작업 실시
- ※ 특히 호주는 자국에서 생산되는 품목과 동일 품목이 수입되는 경우와 수입이 증가하는 국가산에 대하여는 통관검사가 한층 까다롭다는 주장이 있고, 그 밖에 국가별 상품 이미지에 따라 검사가 까다롭거나 수월하다는 의견도 있음.
- 한국산 주요품목 검사내용(참고표 “품목별 규제성분 함량기준” 참조)
 - 김 : 카드뮴 0.02mg/kg. 아세닉(비소) 0.1mg/kg 등 증금속 함량초과 시 수입금지

표 4. 품목별 규제성분 함량기준

규제성분	검 사 대 상 품 목	기본함량
ANTIMONY (안티몬)	- 음료 및 기타 수분 식품 - 기타 모든 식품	0.15mg/kg 1.5
ARSENIC (砒素)	- 음료 및 기타 수분 식품 - 닭의 간 -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無機 砒素) - 물 - 기타 모든 식품	0.1 2.0 1.0 0.05 1.0
CADMIUM (카드뮴)	- 음료 및 기타 수분 식품 - 겨(BRAN) - 갑각류 및 갑각류가 포함된 제품의 갑각류 내용물 - 어류 및 어류가 포함된 제품의 어류 내용물 - 간 이외의 식용 부산물(EDIBLE OFFAL) - 간(LIVER) - 肉筋(MEAT MUSCLE) - 연체류 및 연체류가 포함된 제품의 연체류 내용물 - 물 - 밀胚芽(WHEAT GERM) - 기타 모든 식품	0.05 0.2 0.2 0.2 2.5 1.25 0.2 2.0 0.005 0.2 0.05
COPPER (구리)	- 음료 및 기타 수분 식품 - 코코아 및 초콜릿 - 양(羊)의 간 이외의 식용 부산물 - 양(羊)의 간 - 연체류 및 연체류가 포함된 제품의 연체류 내용물 - 물 - 기타 모든 식품	5.0 50.0 100.0 200.0 70.0 1.0 10.0

- 간장 : 방부제 함량검사
- 라면 스프에 육류성분 포함시 별도 검사 실시
- 국수 : Egg 성분을 검사
- 단무지 : 사카린 0.01mg/kg초과시 수입금지
- 과자, 음료수 : Egg 성분과 육류성분 함량 검사
- 소스류 : SODIUM BENZOATE 성분 검사
- 육류 통조림 : 육류를 5%이상 함유한 식품류 수입시는 호주검역소의 사전허가 필요
- 유가공품 : 유가공원료를 10%이상 함유한 식품류는 호주검역소의 수

입허가를 받아야 함.

마. 한국산 식품의 현지인 마켓(아사아인 및 서양인 마켓) 진출방안

- 첫째, 호주 수출품은 호주의 식품검사 및 라벨링 요건에 맞게 제품화하여 수출할것.
- 한국산은 규제성분 및 함량, 식품표시(라벨링), 유통기한, 표기용량과 실제 용량과의 차이 등에 문제가 있음(예 : 라면, 과자류 등).
- 제품화 수준이 높으면 그만큼 통관 검사과정은 신속, 원활해지고 시간 및 비용면에서 불필요한 손실을 피할 수 있음.

표 5. 수입식품 검사품목 분류

(RISK CATEGORY : 21개)	(ACTIVE SURVEILLANCE CATEGORY : 1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마토 통조림 및 토마토제품 - 치즈 - 코코넛 - 갑각류 - 무화과 - 연체동물 - 버섯통조림 - 접조개 - 파프리카고추 - 달걀이 함유된 파스타(국수)제품 - 땅콩 - 후추 - 주석 캔용기의 절임 채소류 - 피스타치오 너트 - 조개류 - 해조류 - 방사선 오염지역 식품 - 훈제 진공포장 수산물 - 딸기 - 참치 - MARINARA MI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즈(위험품목 이외) - 초코릿 및 기타 코코아가 함유된 식품 - 파스타 - 채소 및 과일류 조제품(식초 및 초산에 의한 조제품) - 버섯조제품 - 기타 채소 조제품(냉동품 제외) - 과일, 견과류의 설탕조제품 - 잼, 젤리, 마마레이드, 과일 및 견과 페이스트 - 기타 채소 및 견과류의 조제품 - 과일 및 채소주스 - 차, 커피, MATE, 치커리 등의 추출물, 농축물 및 精製品, 커피 대용품 - 이스트 및 조제된 제과용 가루 - 소스류, 혼합조미료 및 양념류 - 각종 스프와 국물 - 아이스크림과 기타 식용 얼음 - 명시되지 않은 식품 - 설탕이나 감미료가 함유되지 않은 물 - 설탕이나 감미료, 또는 향료가 함유된 물
<p>(비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식품류로 분류된 식품은 정밀 검사를 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카테고리의 식품은 수입품중 10%씩을 추출하여 검사 실시 ○ NFA는 6개월주기로 감사부류 품목을 교체함.

※ 검사품목분류 담당기관은 NATIONAL FOOD AUTHORITY(NFA)

표 6. 품목별 관세율

품 목 별	HS분류번호	일반관세율	개도국관세율
귤	0307.10.0013	무 세	무 세
건조과일(곶감)	0813.40.00	5%	5%
녹 차	0902.10.00	무 세	무 세
인 삼	1211.20.00	무 세	무 세
냉동 해초류	1212.20.1036	5%	무 세
기타 해초류(마른김)	1212.20.9037	무 세	무 세
소세지	1601.00.0001	5%	4%
계맛살	1605.10.0004	무 세	무 세
국 수	1902.19.0007	5%	4%
혼합조미료	2103.90.0017	무 세	무 세
불고기양념	21.3.90.0018	무 세	무 세

둘째, 현지실정에 맞는 제품 홍보활동의 전개

- 세계 각국시장에서 소비자에 대한 제품의 인지도 여부는 판매에 중요한 요소임.
- 우리식품은 아시아인들을 비롯한 현지인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제품의 성가에 비해 판매가 활발치 않음 (예 : 삼계탕, 조림류-연근, 오징어조림 등).
- 현지인 마켓진출을 위해서는 현지의 각종 문화·체육행사시 시식기회 제공

등 현지실정에 맞는 홍보활동의 전개가 긴급요

셋째, 정부간 통상협력 차원에서 호주의 수입품 통관검사 완화노력 필요

- 호주 관세청이 수입식품에 대하여 리스크 분류 품목을 확대하여 검사의 종류와 횟수를 증가시키는 등의 수입품 통관검사를 강화함에 대하여 이를 정부간 협력차원에서 완화노력 필요 (현지 수입업자 건의)

자료 : 농수산물 무역정보 제공